

가정예배 안내서

1

1994

충현의 만나

이사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도록
2.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신성중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름이 충만한 데까지 온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충현의 만나

1994년 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1월호 집필을 위하여 김양흠·김찬곤·이홍성·김용기·김희수·조동원

이병각·성봉환·정광욱·장봉생·윤삼중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서론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주인공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예사야후, 또는 그 단축형인 예사야로 붙여졌다. 이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아사'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 또는 '야'가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와 구원 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책 이름처럼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은혜를 통한 여호와와 구원 하심'이며, 본 서의 기록 목적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의 사역은 유다왕 웃시야(BC 767-739) 통치 말기부터 시작하여 요담(BC 731-715)의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BC 715-686)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 이사야 자신의 활동 당시에 있었던 일(1-39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사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들(40-66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거룩성, 여호와와 고난 받는 종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들이 다루어져 있다. 특히 본 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면 이사야가 마치 신약의 선지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 예언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이사야서의 주요 낱말은 '구원'이며 핵심구절은 9장 6절과 53장 6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1)

1994년이 밝았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함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그의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정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출발하려고 계획하십니까? 먼저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날마다 천국의 삶이 펼쳐집니다(1-5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강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으로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강림할 때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평안이나 부요함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1994년에 우리 가정을 평안으로 완전히 덮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베들레헴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을 심고, 찬양으로 꽃피우며, 전도로 결실을 맺기 위하여 경주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1994년도에 하나님을 아는 충만함을 주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 지이다.” (12:5)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구원의 확신자의 고백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되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샘솟듯 넘쳐 나왔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소리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라는 두레박으로 기쁨의 물을 퍼 올려야 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퍼내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감사의 두레박을 구원의 우물에 던진다면 기쁨의 물을 영원토록 마시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맞이하는 첫주일 다시 한 번 우리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는 각오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속에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쁨의 삶이 넘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도 / 주여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영육간에 강 건함을 주옵시고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든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소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13:6)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와 그의 날”이라고 합니다. 먼저 “모든 손이 피곤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항 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싸울 용기마저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공포와 경악의 극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종말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셋째로, 강포한 자의 거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더 이상 상주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와 유랑민까지도 머무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주권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이 잘되고 형통할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갖고,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딸씀의 권능을 크게 더 하시며 사역을 돕는 자들이 구름떼 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아굽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14:1)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더 이상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칠혹 같은 암흑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죄악의 절망에서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긍휼하심을 예비해 두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게 하소서. 새해에도 천천히 온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소서.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14:20)

그 사람이 앉은 의자(직분)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보다 좋은 의자, 보다 높은 의자를 찾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도 가족도 취미도 희생을 합니다. 의자가 바뀔 때마다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 자체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오히려 앉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길 때에는 지난 날의 영화로움보다 더한 초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아침의 아들로써, 계명성으로서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고 누리는 생활만 하였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까지도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앉은 의자(직분)는 어떤 의자(직분)인가요? 더 높은 의자, 더 좋은 의자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요? 아니 이 의자에 앉아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이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지낸 후에 의자의 주인으로부터 어떤 결재를 맡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자를 좋아 하는 사람보다는 의자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 기도 / 주님께서 맡겨주신 의자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의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서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리라』(14:24)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가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불만은 식사로 주는 바나나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인은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4개의 바나나를, 저녁에는 3개의 바나나를 주었습니다. 주인은 곰곰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그러면 좋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깊지 못한 원숭이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결과이지만 약간의 상황의 변화에 그저 기뻐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짧습니다. 깊이가 있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비슷할 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며, 변화무쌍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무한한 힘을 제공하는 생각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은 사람의 한계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며 한번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악한 자가 소멸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함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실현할 때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자만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 기도 / 죄악이 관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그날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결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에게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15:20)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므로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명목하게 자연을 파괴하였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서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죄악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는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의 경고로 되지 않으므로 급기야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흉한 덩어리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그만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수술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을지라도 더 큰 다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 기도 / 순간 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충성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16:6)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나라들이 반드시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끔직한 심판 예언 뒤에 다른 나라들의 심판 때와는 달리 심판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방으로 든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수자원이 풍부함으로 많은 곡물과 목축이 성행하였던 나라였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튼튼한 국방력이 개인과 국가의 영적 분별력과 도덕적 양심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줄 착각하였 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예고없이 징계를 하지도 않으시고, 사전에 범죄자에 대해서 충분한 경고를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는 언제나 공회 의 공여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겔 18:32).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경고하셨으며, 이제는 이사야를 통하여 모압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소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풍요로움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지 않고, 교만히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 기도 / 풍요로움이 과소비와 사치로 연결되어지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새해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소서.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17:10)

다메섹은 시리아를,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의지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다메섹과 연합하여 형제국인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에브라임이 이방 시리아와 함께 멸망할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고 죽이는 다산(多産)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분을 저버리는 것은 그 분과의 관계도 저버리는 일이며, 따라서 그 분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사라진 영광을 자랑하는 화려한 건물 중의 하나가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입니다. 1473년 교황 식스투스 4세를 위해 건립된 이 예배당은 특히 천재적 화가 미켈란젤로의 벽화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알려진 그림이 '최후의 심판'일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가서 사람들은 물론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적 사상을 웅장한 화면에 힘껏 묘사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과연 공정한 세상이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가장 큰 위안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고 악한 방법으로 권세를 잡은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 기도 /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면서 참 감사를 맛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새해 계획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견고히 세우는 위원회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8:4)

본문은 유다를 반(反)앗수르 동맹에 가입시키기 위해 구스(이디오피아-에굽의 남부로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에굽 전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에서 온 사신들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이번에도 이사야는 시기적절하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철저히 의지하여 그 제안을 간단히 일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자기는 무익한 종임을 순간 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한 사람을 찾아 와서는 열심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많이 한 것, 많은 물질을 포기하는 것, 명예를 포기하고 청빈생활의 본을 보인 것, ‘이런 일은 당신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추켜 주었습니다. 마음을 고무풍선처럼 부풀게 하고 자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그는 사탄의 말을 가로 막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이것 밖에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 16:18-19)

신앙인들에게 이런 유혹이 종종 있습니다. 철야기도 한 뒤에, 전도하고 난 뒤에, 열심히 봉사하고 난 뒤에,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한 뒤에 사탄이 찾아와 종종 이런 유혹을 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 기도 /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며 충성되어 섬기게 하소서.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
준하여졌으니』(사 19:11)

세계 역사상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한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 온 나라가 피로 물들게 되면 치
안부재로 인해 백성이 온갖 범죄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관리들은 부
정부패를 공공연하게 행하며 정직한 사람은 투옥되거나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양육시켜 놓은 고린도 교회에는 잘못된 지도자의 지도
로 분파주의가 발생하여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아내거나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보호했습
니다. 그는 자신의 주관에 별로 없기에 부인인 이세벨에 의해 조종당하
여 온 이스라엘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차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온 백
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 북한 기타 공산권 나라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인 위기
에 봉착해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들이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
앙은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기도 /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김영삼 장로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새
해에 맡은 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배가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사 19:22)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도를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를 떠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업을 하던 모교회 집사님은 그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온 가족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집사님은 예수를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처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오히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그는 기독교 신앙을 허구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이들에게 함같이 우리를 옳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롬 8:28).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 기도 / 주여 주님의 징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각 교구 위에 전도의 능력을 주시어 배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교구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 가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사 20:2)

불교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위해 수련할 때 수도자는 자기 스승이나 앞선 선각자뿐 아니라 석가나 그의 가르침조차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진여(眞如)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교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즉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으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히3:15-19). 이런 의미에서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삼상 15:22,23).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와 같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삼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20:3)

▶ 기도 /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남 여전도회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 하시며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사 21:6)

본문은 메데와 바사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과 두마(에돔 족속)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서 특히 바벨론의 멸망을 동정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3절). 특히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100년이 훨씬 지나 멸망 당했습니다(주전 539년).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멸망 당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불가능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더욱 강한 나라인 메데와 엘람(바사)에게 여지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혹독하게 멸망 당했는지 강한 회리바람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멸망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최소한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없이 악을 행하다가 멸망 당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막강한 나라인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고난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게 하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를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사 22:12)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충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를 보내사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유다로 보내시어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상 골짜기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예루살렘이 산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나라와 격리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교훈을 알게 됩니다. 역경과 고통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 자기의 의지대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고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역경의 순간이 찾아올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 기도 /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붙들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여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 사역지의 현지인들에게 새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교를 맡고 ……』(사 22:15)

셉나라는 사람은 유다의 국무총리겸 재무장관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으면서 나라의 전 금융을 담당했던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직무에 적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설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자기만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관직을 빼앗아 엘리아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못과 같이 견고하게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가족과 가문도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아김은 셉나를 대신해서 히스기야 14년에 국무총리겸 재무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측근에 의해 그는 결과적으로 욕을 먹게 되었고 결국에는 부패한 정치가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계속 죄를 지으면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많은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려움을 면하는 방법은 잘못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셋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과분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 기도 /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항상 달란트를 의식하면서 감사하며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리안자이드 지역의 현지인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두로에 관한 경로라 다시스의 선척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사 23:1)

이사가 선지자는 거대한 도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도시들 중의 하나로 지역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수 많은 배들이 왕래하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도시를 향해 선지자가 멸망케 될 것을 예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곳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의 축적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영광을 손상시키시기 위하여 강대국인 앗수르를 통해 징계토록 허락하셨고 그 결과 더 이상 두로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국가에 혹은 개인에게 모든 것이 잘되어 풍요와 번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복이 되지만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이 사라질 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두로의 교훈을 잊지 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과 특별히 중송이의 건강을 지켜 주시며 모든 방해자들을 회개시켜 주소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흠으시리라』(사 24:1)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 후 이제 본문에서는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열심이던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을,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어 왔고 의지하며 살아 왔던 희망의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세상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범죄케 되어 이제는 심판과 멸망뿐인 모습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땅위에 소수만을 남기고 다 태워 버리는 불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은 시들어 버리고 음악과 잔치는 멈추게 되며 슬픔과 탄식으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 때, 회개하지 않으면 땅을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기도 / 우리의 믿음생활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를 통하여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회교권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자라이트 닝마주의 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도우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사 24:15)

본문은 땅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대환난의 어두움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게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임을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높은 군대로 표현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도 결박된 채 흑암에 가두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더 이상 심판은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는 일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참 매시아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지 연구소 건립을 도우소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사 25:8)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며 행복이 넘치는 잔치를 베풀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은 바로 천국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국잔치를 마다했습니다.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잔치집 주인을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처음 천국잔치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다시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베푸십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였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를 풍성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풍성했고 육신의 양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천국잔치는 잠시 중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는 죽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국잔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천국잔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편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잔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좋지만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런 잔치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홍콩총현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며 광주 심천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잘 성장하여 중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사 26:3)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견고한 예루살렘성은 불탔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무슨 견고한 성읍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합니다.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십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폐허가 된 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견고한 성읍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고 견고한 성읍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갑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풍파나 죄가 침입할 수 없는 의와 평화의 성입니다. 아무도 이 성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6.25 전쟁과 일제 식민지 수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는 상관없이 하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 기도 /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화란어 훈련을 도우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한 확실한 비전을 주소서.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사 26:16)

시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자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앙모한다는 말은 ‘당신을 찾아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방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를 말합니다. 심령에서 우리나라 오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느라 죽을 지경이었습시다.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 때에는 미친 사람 같았습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한번만 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 기도 / 환난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에 응답하소서. 김창수 목사(수리남)의 사역을 도우시고 새로 등록한 현지인 가정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시며 수리남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소서.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쫓겨난 ……』(사 27:13)

본문은 유대왕국이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멸망당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유대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주변 강대국에 속박당하는 국가적 고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방황하는 영적 고통에서 다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는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얻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참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날” (1, 2, 13절)은 바로 이런 일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회복은 단지 유대왕국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세계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때에 악한 자(뱀, 리워야단)를 제거하실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상숭배(9절)가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속에서 이루어져서 애굽과 앗수르에 끌려갔던 유대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중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도, 육신적인 질병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 찬송과 경배를 드립시다.

▶ 기도 /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와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성령께서 중고등학생, 주부들의 성경공부를 친히 주관하소서.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사 28:3)

본문은 에브라임의 교만함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에브라임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백성들은 물론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술로 인해 비틀거리고 있으며, 심지어 재판하는 자리에 까지 술 때문에 실수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에브라임의 사회적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면서 이들의 교만을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13절). 즉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것이라(3절)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은자(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5절)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술 취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면류관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술 취하여 비틀거리는 듯한 교만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함이 우리 가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기성, 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의 언어훈련과 현지적응을 도우시고 전도의 문을 넓혀 주소서.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사 28:17)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백들의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2절)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이들을 가리켜 “경만한 자”(1절)라고 했으며,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22절)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라고 하시면서, 그 기초석을 통하여 공평으로, 의(義)로 다스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의 원리를 따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자가 명심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벧전 2:4).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국가와 직장, 가정(가장으로, 아내와 어머니로, 윗사람으로)과 개인 모든 경우에 우리는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도성이 멸망당할 수 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의 책임은 그 얼마나 중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경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가 문서선교와 외향선교를 통해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새로 전도한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사 29:12)

아리엘은 성전 제단의 화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속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고 또 근원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작은 제단 제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단이 되어서 통째로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게 되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거짓말하는 것 하나, 혹은 도적질하는 것 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습니다(10-12절).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다 술취한 사람처럼, 소경처럼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흰 부분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전의 제단처럼 정결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인 대적의 무리는 경각간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박살내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악의 정도로 본다면 조금도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 기도 /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일본사역을 위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사 29:13)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질적인 위선을 보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막 7:6).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옹기그릇이 토기장이를 가리켜 ‘그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라고 업수이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외식에 구애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상전벽해’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17). 그래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외적으로 회복되며, 폭력을 휘두르고 교만한 자를 이 땅에서 없이 하시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인하여 환희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굶어졌던 공의가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잡아서 헛된 일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기대하다가 얼굴빛을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악과 사회의 불의, 불공평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교회 내의 입술의 경건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회복시키실 뿐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 기도 / 하나님이여 경건의 모양뿐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하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케냐)의 언어훈련과 현지적응을 도우시고, 팀선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과 잘 협력하게 하시며 400여명의 맛사이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사 30:3)

앗수르 왕 사르곤의 군대장관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침공하였을 때 안보에 위협을 느낀 유다는 앗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인 남쪽의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맨몸, 맨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이 반드시 앗수르에게 패하고 애굽왕과 귀족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앗수르로 끌려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사 20:1-6).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당한 유다 왕은 이사야에게 묻지도 않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유다의 사신이 이미 애굽의 하네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유다에게 수치가 되고 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앗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애굽이 앗수르에게 패할 때 애굽의 수치와 욕을 유다가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이 밖으로 나있기 때문에 마음 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깥으로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북한선교를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며 사랑의 의료기구 전달을 도우시고 식량이 잘 보급되게 하소서.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사 30:6)

사람들은 누구나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을 향해 도움의 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재물과 보물을 잔뜩 가지고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물과 보물은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며 많은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바로 써야 하는데 그 귀중한 재물을 잘못 쓰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 두어야”했던 것입니다. (마 6:20) 고넬료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데 바쳐야 합니다. (행 10:2)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재물이 헛되이 쓰여지는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암사자, 수사자, 독사, 이 나무에서 저나무로 뛰어 옮겨 다니는 불뱀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그만큼 절실하며 위급하며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갔더니 어둡이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생명을 걸고 낮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이여…”하고 외쳤습니다.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거기에 참 삶이 풍성합니다.

나는 지금 재물을 하나님나라에 저축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을 향해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 기도 / 하나님, 저의 재물을 하나님 사업위해 쓰겠습니다. 돕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어서 이웃을 돕고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사 30:19)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이나 심령은 예루살렘이 됩니다.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고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은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인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쉴 새 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떡을 애타게 조르며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그냥 저절로 부르짖어 지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된 것을 깊이 인식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앞에 나가서 부르짖었고, 에스더도 3일 3야를 금식하며 부르짖었으며 한나도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없이 속으로 애끓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구속의 큰 사명을 직전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을 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네게 응답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그대로 들으십니다. 부르짖음을 귀찮아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에스더에게, 한나에게 응답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도 / 주여, 이 민족이 주의 재림때까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 구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사 남은 여생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며 뻑뻑한 연기가 ……」(사 30:27)

『여호와와 호흡이 유향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사 30:33)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죄악의 시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이며, 그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에 간혀 있지 않습니까?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무서운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무서운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은 너무 너무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 심판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향불을 내려서 모조리 없애버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유향불이 소나기처럼 쏟아진 심판, 무섭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없이 결혼하고, 하나님없이 회회낙낙거리며, 주먹이 법으로 통하던 그들에게 40일 동안 밤낮없이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지고 넘쳐나서 생명있는 존재가 모조리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장차 불심판을 받으려고 점점 죄악으로 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면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오직 한 길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입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참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 기도 / 주여 우리에게 눈물의 회개와 헌신의 결단을 주소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해주신 주님 2월에도 동행하사 승리케 하소서.

구역공과



작가명

새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라

성경 : 사 43:14-21절

찬송 : 248장, 453장

요절 : 사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1. 서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시킨 후에 그를 통하여 새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의 새 비전,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짐하며, 개인에 대한 계획, 가정에 대한 계획, 구역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시다.

2. 본문배경 연구

구속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과 아울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멸망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열강들에 의한 침략과 성의 함락 앞에서 극히 무기력하게 절망을 맞이하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절망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새 일을 시작하리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새로운 기회이며, 절망속에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다는 소망찬 기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3. 본문 연구

1)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한 주체자는 누구십니까(14절)? 여호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함께 나눠보십시오.

2)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며, 믿고 있는지 15절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쓰십시오.

3)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시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기록하십시오(19-20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광야와 같이 막혀 있는 것, 사막과 같은 공허한 상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새로운 비전과 소망의 문을 활짝 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새 비전과 새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풍요롭게 하시며, 그 풍성함을 그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4)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말로 써보고, 그 내용을 삶과 연결시켜보십시오(21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알게 된 이후에 나의 결심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기록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4. 삶의 적용

1) 새해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전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2) 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좋은 계획을 나누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3)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점과 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5. 결론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개인, 가족,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의 뜻 > 원하시는 것, 드려주시고, 기뻐하셨고
↓
이것이 신의 뜻이다.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성경 : 엡 2:1-10절

찬송 : 21장, 210장

요절 :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 서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죄를 정작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이 없이는 받아 들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나와는 상관 없는 것이 됩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이제 과거 사단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분명한 확신을 심어 줍니다.

3. 본문 연구

- 1)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1절)
- 2)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 결과 본질상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3절)
- 3)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기록하십시오 (4-5절)
- 4)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선행과 공로를 근거로 한 구원인가?(8-9절) 자신의 생각을 적으십시오.
구원받는 사실을 남들에게 자랑할 근거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5)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 삶의 적용

- 1) 구원받은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은혜에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였는가를 함께 나누십시오.
- 2) 만약에 오늘밤 내 생명이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십시오.
- 3)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이웃, 친구, 친척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모임에 새로운 사람을 구역으로 데려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십시오.

5. 결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구원해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가 됩시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민족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는 천국일꾼이 됩시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

성경 : 빌 3:17-21절

찬송 : 248장, 245장

요절: 빌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 서론

성도는 이 세상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기쁨은 슬픔도 없고 고통과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의 호적등본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민권이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습니다(히 1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잃어 버리지 않기 위하여 굳세게 지켜야 합니다.

2. 본문배경 연구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려 가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육신의 배만을 채우려는데 정신이 팔려있는가?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는 너희 신분과 소속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이 세상의 사상과 각종 세속주의에 흠뻑 취해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3. 본문 연구

- 1)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변질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17절)
- 2)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변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되게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18절)
- 3)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가 나의 소속과 신분을 재확인하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누십시오. (20절)
- 4)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나중에 어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21절)

4. 삶의 적용

- 1)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고, 친히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는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구역에 편성은 되지만 못 나오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 2)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십시오. (

5.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나누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성경 : 엡 3:1-13절

찬송 : 277장, 260장

요절 : 엡 3: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
었노라”

1. 서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바울이 다마스켄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기는 상황속에서도 그의 자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이 강하여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들이며, 나중에 지옥의 땀감으로 쓰이게 될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길에서 만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교회를 이룬다고 선언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유대인 총회를 역사적으로 계승한 교회의 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속사의 전개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3. 본문 연구

- 1)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6절)
- 2)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십시오. (8절)
- 3)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까?(10절)
- 4)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12절)

4. 삶의 적용

- 1) 하나님의 각종 지체가 교회를 통하여 계시하는 것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교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십시오.
-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가 호모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구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나누십시오.

5. 결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울처럼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시명으로 인식하고 전심전력하는 구역이 됩시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이
- 5) 주 기 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